

2024 평신도월례회공과

영성회복 · 교회회복 · 세상의 빛

존 웨슬리의 사랑의 실천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

목 차

머 리 말	3
격 려 사	4
발 간 사	5
들어가는 말	6

제 1 단원 선행 없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1월 선행 없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11
2월 따뜻한 말 한 마디	15
3월 하나님 나라로 가는 다리	19

제 2 단원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

4월 두 팔로 안아주실 때까지	27
5월 가정에 뿌리내리는 믿음	31
6월 예수 나의 치료자	35

제 3 단원 하나님의 학교

7월 영혼에 불을 지르지 마십시오	43
8월 우주를 돌보시듯	47
9월 하나님의 학교	51

제 4 단원 사랑의 실천

10월 예수 내 친구	59
11월 걱정 대신 감사	63
12월 손발 없는 예수는 없다	67

대한민국 건국훈장 애족장 추서 받은 최인규 권사	72
근대초기 여선교사 엘라수 와그너	76

영성실천의 모범, 감리회 평신도

기독교대한감리회 이 철 감독회장



웨슬리 때부터 ‘평신도 사역’은 감리교회의 중요한, 자랑스러운 전통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평신도들의 사역과 참여가 없었으면 초기 감리교 운동의 발전과 확산이 불가능했을 정도였습니다. 한국선교초기에 주체적으로 복음을 수용하고 교회 설립의 주역이 되었고, 일제강점기에도 신앙으로 민족계몽을 이끌었고, 민족의 수난 현장에 십자가의 신앙으로 동참하며 민족문화와 역사 전통을 지키는 활동에도 적극 참여했던 분들이 바로 평신도였습니다. 교회 분열의 시련 속에서 ‘하나 된 감리교회의 전통’을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하며 교회부흥과 사회갱신에 앞장서는 실천신앙의 모범을 보인 이들도 바로 평신도였습니다.

이런 역사적 체험과 유산을 간직한 한국감리교회 평신도에게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정체성’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을 지나며 엄청난 변화를 경험한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과거에 교회는 변화의 주체였고 시대를 이끄는 대안이자 희망이었으나 현재 교회는 그 역할을 잘 감당하지 못하고 외면 받고 위축되어 있습니다. 과거의 향수에 젖어 있을 때가 아닙니다. 더 늦기 전에 현재의 상황을 극복하고 미래를 여는 길을 제시하고 당당하게 걸어가야 합니다. 교회에서 주체가 되는 분들이 ‘평신도’입니다. 평신도 여러분의 걸음 걸음을 응원합니다. 변화는 실천의 영성에서 시작됩니다.

매년 발행되는 ‘평신도 월례회 공과’가 실천적 영성을 세워가는 멋진 도구가 되길 기대합니다. 지난 3년 동안 한국감리교회의 초기역사에서 자라난 이야기들을 나누고, 존 웨슬리의 실천적 영성을 이끈 신앙적 기준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올해는 영국을 넘어 전 세계에 감리운동을 통해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던 존 웨슬리의 구체적인 실천내용을 중심으로 공과를 구성하였습니다. 세상을 변화시킨 감리교회 운동의 실천사례들을 나누며 한국감리교회의 미래를 다져가는 평신도로 자리매김하길 기대하며 기도드립니다.

매년 평신도 교재를 기획하는 평신도부와 집필을 위해 수고하신 김정민 목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영성실천을 어떻게 하는 것인지 그 모델을 보여주는 이번 공과를 통해 존 웨슬리를 넘어 우리가 모범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언제나 강조해도 지나침 없는 존 웨슬리의 말(1786년)을 전해드립니다.

“저는 감리교인이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유럽이나 미국에서 사라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단지 감리교가 종교의 형식만 갖춘 채 능력없는, 죽은 교파가 될까 봐 두려울 뿐입니다.”



날마다 새롭게 살아가는 인생

사회평신도국 위원장 **박장규** 감독

2024년에도 하나님의 은혜가 평신도 가정 위에 가득 넘치시기를 기도합니다. 코로나 이후에도 사람들의 삶은 더욱 팍팍해졌다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래서 더욱 우리 인생은 자신도 모르게 인생의 3가지 결정론에 빠져 감사를 잃어버릴 때가 있습니다. 1) 첫째로 프로이트의 심리적 결정론에 의하면 부모의 양육방식과 어린시절의 경험이 우리를 결정해 놓았다고 합니다. 몸은 성인이지만 마음은 어린 시절에 갇혀 사는 성인아이처럼 자신의 인생을 과거 상처에 묶어 두고 사는 인생입니다. 2) 둘째로 찰스 다윈의 생물학적 결정론 때문에 이미 그런 유전자로 태어났기에 어쩔 수 없이 실패자로 낙심자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3) 셋째는 상황과 환경이 사람을 결정한다는 마르크스의 사회적 결정론 때문에 사람들이 도저히 살아갈 수 없는 상황과 환경 속에서 많은 것을 포기하며 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나도 모르게 인생의 결정론에 빠져 살지는 않는지 묻고 싶습니다. 과거의 상처에 늘 묶여 있어서 미래를 바라볼 수 없는 성인아이처럼 살아오지 않았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내게 주어진 상황과 환경에 묶여서 쉽게 좌절하고 원망하고 불평하며 살아오지 않았는지 말입니다.

사도 바울이 인생의 결정론의 굴레를 부숴버리고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고후 5:17)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사도 바울은 더 이상 과거의 상처와 세상의 환경과 조건에 얽매이는 존재가 아니라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 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는 믿음이 그를 감사하는 인생으로 기뻐하는 인생으로 만들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평신도 여러분, 새해에는 더욱 인생의 결정론에서 벗어나 새로운 피조물로 날마다 새롭게 감사하며 살아가는 인생으로 사시기를 격려하고 기도합니다.



행복을 나누는 그리스도인

사회평신도국 총무 **문영배** 장로

하나님의 은총이 가정과 섬기시는 교회와 일터에 언제나 함께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2024년에도 작년에 이어 존 웨슬리의 정신을 담은 주제로 월례회공과를 준비하였습니다. 행복한 감리교인, 행동하는 감리교인으로 살기 위해 하루하루를 어떻게 생활해야 하는가 하는 문제 앞에 이 월례회공과가 기준이 되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평신도가 되기 위해, 먼저 나부터 행복한 감리교인, 세상을 밝히 비추는 감리교인의 모습인지 돌아보는 계기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사실 우리는 오랜 시간 교회에 몸담고 신앙인으로서 살고 있지만, 가장 낮은 곳 어두운 곳을 찾아 어려운 이에게 먼저 손내밀고 그들의 아픔과 함께 하며 주님 사랑을 전하는 일에 소홀했는지도 모릅니다. 실천이 없는 말만 앞서는 신앙은 공허할 뿐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리 가르쳐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진정 세상을 바꾸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는 일꾼으로서 제대로 쓰임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 안에 하나님 사랑이 확고히 자리잡아야 하며 그 사랑을 바탕으로 믿음의 뿌리를 굳건히 하여 선행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야겠습니다.

평신도 여러분, 빠른 속도로 변하고 있는 세상 속에서 여러분 각자가 흔들리지 않는 중심추 역할을 해주십시오. 여러분의 영성을 회복하고 무너진 교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더 나아가 지역사회에서 교회가 제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힘을 합쳐 변화를 이끌어보십시오. 변화는 한 순간에 이뤄지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는 밀착업이 이뤄져야만 변화를 이룰 수 있습니다. 저는 평신도 여러분이 변화를 위한 걸음을 힘차게 내딛으시리라 믿습니다.

월례회공과를 통해 2024년 한해, 주님 안에서 행복을 찾고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월례회공과 집필 및 감수를 맡아주신 목사님들과 발간되일까지 애써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감사합니다.



교재 사용법

집필자 김정민 목사

주님께 영광! 새해를 허락하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드립니다. 또한 이 교재를 통해 하나님과 더욱 깊이 교제하며,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하실 것을 믿고 소망합니다. 「2024년도 평신도 월례회 공과」는 존 웨슬리가 한평생을 살아온 그리스도인의 삶의 규칙들을 각각의 월별 주제에 따라 담았습니다. 웨슬리는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는 자녀들에게 죽은 신앙을 물려주기보다는 살아있는 신앙, 곧 실천하는 신앙을 물려주었습니다.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 안에서, 훌륭한 어머니의 따뜻한 사랑으로 말미암은 영성훈련을 통해 웨슬리는 거룩한 인격과 성품을 형성하였고,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을 갖게 되었습니다.

존 웨슬리는 탁월한 신학자요 목회자였지만 그보다 앞서 누구보다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가였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으로 영혼을 사랑하여 생명을 다하도록 복음을 전하며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인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따뜻한 말 한 마디라도 전하고자 했던 마음 뜨거운 영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로 인하여 당하게 되는 그 어떤 고난이나 박해나 핍박도 감사함으로 승화시키는 사랑의 사도였습니다. 온 몸과 마음을 다 바쳐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겼던 웨슬리의 삶의 면면들을 아는 사람들은 하나같이 그의 삶을 존경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을 존경하고, 웨슬리를 존경하는 것에만 그쳐서는 안 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사셨던 것처럼, 웨슬리가 그렇게 살았던 것처럼 우리 역시 아주 작은 것이라도 매일 매일 실천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합니다.

이 교재를 사용하여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실 때에는, 안내되어 있는 순서에 따라 매 월 각 주제에 맞는 찬송과 기도를 통해 먼저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사랑의 실천’을 위한 성경말씀과 웨슬리의 가르침을 통해 우리가 어떻게 사랑을 실천해야 하는지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각 주제의 내용을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진 후 마지막으로 ‘성찰을 위한 질문’의 시간을 통해 서로의 삶을 돌아보며 은혜를 나누고 구체적인 사랑의 실천을 결단하는 시간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존 웨슬리의 신앙과 영성, 그리고 그의 삶은 실로 놀랍습니다. 이토록 훌륭한 사랑의 사도가 우리의 신앙 선배임이 자랑스롭습니다. 그 자랑스럽고 존경스러운 마음이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통해 열매 맺기를 바랍니다. 2024년에는 우리 교회가 더욱더 사랑으로 소문난 감리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인생활수칙(1)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롬 12:2)

1. 교인생활 수칙

우리는 주님의 몸 된 교회에서 지체의 하나로서 서로 섬기고 협력하며, 직분에 따라 받은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 충성한다.

- ① 교우들을 대할 때 누구에게나 형제와 자매처럼 친절하고,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마음으로 존경과 예우를 한다.
- ② 교회 내에서 교우 간의 호칭은 직분(집사, 권사, 장로)에 따라 부르고, 직분에 벗어나지 않도록 예의를 갖추어 쓰도록 한다.
- ③ 교회의 모든 물품은 성도들의 헌금으로 구입한 것으로 종이 한 장이라도 아껴 쓰고, 교회의 각종 시설을 깨끗이 사용하고 훼손되지 않도록 한다.
- ④ 우선적으로 어려운 교우들을 돕고, 환난 당한 교우들을 최선을 다하여 돌보아 주되, 보증을 서는 일이나 금전거래는 피한다.
- ⑤ 예배나 각종 모임의 시간약속을 잘 지켜서 신실성을 보여주고, 공동체에 해가 되지 않도록 한다.
- ⑥ 다른 교우들의 약점을 들추거나 험담하는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말자, 부정적인 말 한 마디가 한 영혼을 죽이고, 본인의 마음을 부패하게 만든다.
- ⑦ 교회의 모든 일은 나누어서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데 힘쓰고, 주관하는 사역보다 뒤에서 협력하고 보좌하는 습관을 갖는다.
- ⑧ 성도의 사생활이나 허물은 비밀이 보장되어야 한다. 속회에서나 선교회에서 상담하고 일어난 일을 다른 교우들에게 말하지 않는다. 불확실한 말을 전하는 것이 사단이 틈타는 통로이다.
- ⑨ 교회의 일은 교회 밖에서 거론하지 말고, 교회의 부정적인 일을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말하지 않는다.
- ⑩ 모든 일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고, 나의 이익을 구하거나 자리를 탐하지 말자. 상급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다는 것을 명심하자.

01



1단원
**선행 없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1월 선행 없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2월 따뜻한 말 한 마디

3월 하나님 나라로 가는 다리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인생활수칙(2)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롬 12:2)

2. 가정생활 수칙

우리는 가정을 하나님이 주신 신성한 공동체로 여겨 가정예배에 힘쓰고 자녀들을 경건하게 양육하며 검소하고 청빈한 생활을 통해 성숙한 그리스도 가정이 되도록 힘쓴다.

- ① 평등한 가정을 이루기 위하여 가정의 대소사는 부부가 함께 상의 하고, 가족회의를 열어 결정한다.
- ② 하늘양식으로 주간 마다(혹은 매일 매일) 가정예배를 드려 경건한 가정이 되게 하고, 마침기도는 부모님이 함으로 부모님의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숙지시킨다.
- ③ 가족들이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가훈을 만들어 가족의 정체성을 확립한다.
- ④ 가정의 규칙을 만들어 지키게 함으로 공익을 우선하고, 규칙을 잘 지키는 시민정신을 갖게 한다.(귀가시간, TV시청시간, 식사시간 등...)
- ⑤ 매주 한 번씩 모든 가족이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함으로 가족 간의 친목을 도모하고, 품위 있는 식탁 예절을 배우게 한다.
- ⑥ 모범가정 상을 제정하여 해 마다 시상함으로 이웃을 위하여 봉사하고 섬기는 생활을 드높인다.
- ⑦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는 놀이, 음악, 연극 등을 개발하여 기독교문화를 창달하는데 힘쓴다.
- ⑧ 자녀들의 의식주 및 환경을 개선하고, 교육하는 데는 최선을 다하여 투자 하되, 유산은 물려 주지 않는다.
- ⑨ 관혼상제를 간소화하여 허례허식을 지양하고, 부지런히 일하고 청빈한 생활습관을 갖도록 한다.
- ⑩ 술, 담배, 도박, 마약 등 사회악을 추방하는데 앞장서고 생활 실천 계몽 활동에 적극 참여하게 한다.

선행 없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선행 없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1월

선행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시는 진실한 신앙의 열매이며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마치 열매를 보고 나무를 아는 것과 같습니다.

- 존 웨슬리의 「24개 교리」 중에서

조용한 기도	다함께
찬 송	211장 값 비싼 향유를 주께 드린
성 경 봉 독	갈라디아서 6:9
요 절	갈라디아서 6:9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말 씀 증 거	말은 이

선행 없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선을 행하는 것은 믿음의 증거입니다. 기독교 신앙이라는 나무에 맺히는 열매가 선행입니다. 그러므로 선행의 열매를 맺지 못하는 기독교 신앙은 죽은 나무와 같습니다. 존 웨슬리는 선행이 따르지 않는 신앙은 생명이 없는 신앙이요 죽은 신앙이라고 전하였습니다. 교회에서 보내는 시간이 길고, 모든 예배에 참석하고, 기도를 많이 한다고 할지라도 그 사람의 삶에 선행이 없다면 건강한

신앙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선행입니까? 웨슬리는 ‘메소디스트의 특징’이라는 글에서 성도의 선행을 두 종류로 설명하였습니다. 첫째는 이웃의 영혼을 위한 선행입니다. 영적으로 무지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여 죄인을 올바른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깊은 잠에 빠져있는 영혼에게 복음을 외치며 흔들어 깨우는 것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전하여 생명을 구원하는 것이 영혼을 위한 선행입니다. 둘째는 이웃의 몸을 위한 선행입니다. 배고픈 자에게 먹을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목이 마른 자에게 마실 것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헐벗은 자에게 옷을 나누어 주는 것입니다. 병든 자를 물심양면으로 돌보는 것입니다. 옥에 갇힌 자를 방문하여 위로하는 것이요 고난당하는 자를 외면하지 않는 것입니다.

웨슬리는 감리교 공동체에 보내는 서신에서 선행에 대해 매우 자주 언급하였습니다. 기회가 닿는 대로 서로 서로 사랑하기를 힘쓰고 선을 행하도록 일깨워주어야 한다고 강력하게 권면하였습니다. 심지어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감리교인이거나 그리스도인이 아닐지라도 외면하지 말고 선을 행하라고 가르쳤습니다.

존 웨슬리가 선행을 강조한 원인에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에 가장 큰 영향을 받았고, 독일의 모라비안 공동체에 영향을 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에 사랑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였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의 영향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수산나 웨슬리는 자녀들에게 선행을 가르치면서, 자신에게 잘못된 사람들에게도 선을 행하라고 가르쳤습니다. 박해하는 자들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이기 때문입니다.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는 원수에게 선을 행하는 것이 자신과 원수를 모두 구원하는 길이라고 하였습니다. 선을 행하지 않고, 원수 갚는 것은 자신과 원

수가 함께 마멸하는 길이라고 자녀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이러한 가르침 덕분에 웨슬리는 일평생 선을 행할 기회를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찾아다녔으며, 선을 행할 기회를 얻을 때마다 그 누구도 자신의 선행을 방해하지 못하게 하였습니다.

또한 웨슬리는 선을 행함에 있어서 어떠한 대가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감사의 말을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칭찬을 바라면서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상급을 잃는 것과 같다고 하였습니다. 사람들에게 잘 보이기 위해 하는 선행은 올바른 선행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선을 행할 때에는 오직 하나님의 칭찬만을 바라며 해야 합니다.

존 웨슬리는 당시의 영국 감리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그리스도인의 생활을 위한 규칙**”을 전하였습니다.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십시오.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하여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다하여

당신이 있을 수 있는 모든 곳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시간에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 모든 사람에게

당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선을 행하십시오.

2024년에는 이 규칙을 마음에 새기고, 매일 매순간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찰을 위한 질문

1.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이웃의 영혼을 위한 선행'은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봅시다.

2. 오늘 내가 할 수 있는 '이웃의 몸을 위한 선행'은 무엇이 있을지 생각해봅시다.

선행 없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따뜻한 말 한 마디

2월

지금 당신이 있는 곳에서 가난한 이웃에게 선을 행하십시오. 때에 맞는 한 마디 따뜻한 말일지라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 1791년 1월 22일, 존 웨슬리가 토마스 그레이트헤드에게 쓴 편지 중에서

조용한 기도 다함께

찬 송 321장 날 대속하신 예수께

성 경 봉 독 잠언 19:17

요 절 잠언 19:17

가난한 자를 붙잡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꾸어 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말 씀 증 거 말은 이

따뜻한 말 한 마디

존 웨슬리는 어린 시절부터 가난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아버지 사무엘 웨슬리 목사의 수입이 넉넉하지도 못했고, 재정운영방식도 가족을 돌보는 일보다 가난한 이웃을 돌보는 일에 우선권을 두었기 때문입니다. 수입이 들어오면 가장 먼저 십일조를 제하고, 엽월 교구 안에 사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구제비와 어머니의 생활비를 선지출한 후에 남은 금액으로

생활비를 하였습니다.

가난했던 유년시절을 지나, 웨슬리는 옥스퍼드 대학교에 진학을 하였습니다. 이 당시에도 가난했기 때문에 끼니를 제대로 먹지 못했고, 아플 때에 약을 살 돈도 없었습니다. 이처럼 웨슬리는 자신이 오랜 시간 가난을 겪어보았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의 애환과 고통을 깊이 공감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생 찰스 웨슬리와 그의 친구들과 함께 ‘홀리클럽’ 활동을 하면서 최선을 다해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그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며 그리스도인의 사명이라고 굳게 믿었습니다.

웨슬리는 기회가 닿는 대로 자신의 주머니에 있는 모든 것들을 털어서, 가난한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것들을 구입하였습니다. 그리고 직접 가가 호호 찾아다니면서 도와주었습니다. 때때로 본인의 형편이 어렵더라도 구제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웨슬리의 일기나 편지를 보면, 그는 부자들을 찾아가서 식량과 의복과 약품 또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할 재정을 후원받아서 도와주었다는 기록들이 있습니다. 웨슬리는 1785년 1월 4일에 다음과 같은 일기를 썼습니다.

“매년 이맘때쯤이면, 나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석탄과 빵을 나누어 주었다. 그런데 그들에게 식량과 의복이 더 많이 필요했다. 그래서 나는 시내에서 나흘 동안 200 파운드를 모금하였다. 그 후원금을 가장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이 일을 하면서 여러 번, 눈 속에 빠졌다. 찬바람도 많이 맞았다. 그래서 심한 이질에 걸려 몹시 아팠다.”

웨슬리는 왜 이토록 열정적으로, 자신을 돌보는 일마저 뒤로 하고 가난

한 사람들을 도왔을까요? 웨슬리는 가난한 사람들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곧 하나님을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업신여기면 하나님을 업신여기는 것이라고 믿었고, 이 믿음을 감리교인들에게 가르쳤습니다. 심지어 어떤 상황이나 형편에서도 가난한 사람들에게 가혹한 말을 해서 그들의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된다고 하였습니다. 다른 사람을 도울 형편이 도저히 안 된다면, 따뜻한 말 한 마디라도 건넬으로써 가난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주어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1747년 6월 4일 일기를 보면, 가난한 사람들을 돕지는 못할 지라도 그 사람들을 슬프게 하지는 말아야 한다고 기록하였습니다. 아무 것도 줄 것이 없다면 따뜻한 말이라도 들려주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웨슬리의 진심어린 가르침은 당시 수많은 감리교인들에게 이어졌습니다. 대부분의 감리교인들 역시 매우 가난한 삶을 살았지만, 공한 쪽도 나누어 먹는다는 사랑의 마음으로 이웃을 돌보고 물심양면으로 선을 행하였습니다. 그래서 18세기 영국 사람들은 감리교인들을 ‘돌보는 사람들’이라고 부르곤 했습니다. 감리교인들은 어디서든지 가난한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치료하고, 가르치면서 복음을 전하는 참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2024년 대한민국의 감리교인들이 이러한 이웃사랑의 신앙을 이어받아, 지역사회에서 ‘돌보는 사람들’이라고 소문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성찰을 위한 질문

1. 옆에 계신 분과 짝을 이루어서 ‘따뜻한 말’을 나누어 봅시다. 감사했던 일이나 칭찬해드리고 싶은 말을 되도록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전하시면 좋습니다.

2. 이번 주가 지나가기 전에, 내 주위에 형편이 어려우신 분에게 형편이 닿는 대로 작은 선물을 전해봅시다. 직접 쓴 손편지도 좋습니다. 실천하고 난 후의 느낌을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선행 없는 기독교는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로 가는 다리

3월

연기 자욱한 방, 추운 아침, 비오는 날, 함께 있는 사람들의 쌀쌀맞은 태도와 같은 작은 시련들을 비롯한 모든 고난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건너가게 할 것입니다.

- 1791년 1월 22일, 존 웨슬리가, 로버츠 브릿지에서, 한나 볼에게 쓴 편지 중에서

조용한 기도 다함께

찬 송 336장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 경 봉 독 고린도후서 1:5

요 절 고린도후서 1:5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말 씀 증 거 말은 이

하나님 나라로 가는 다리

기독교는 ‘영광의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고난과 영광의 기독교’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고난이 영영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전하였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그리스도인은 영

광과 고난을 모두 받게 됩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이 당한 고난을 이렇게 간증하였습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 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사십에서 하나 감한 매를 다섯 번 맞았으며 세 번 태장으로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세 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주리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러한 고난은, 그가 어떠한 잘못을 했기 때문에 겪은 것이 아니라 순수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복음을 전하다가 겪은 고난이었습니다. 존 웨슬리 역시 사도 바울 못지않게 수많은 고난을 겪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인디언의 공격을 받기도 했고, 수차례나 말에서 떨어지기도 했습니다. 폭도들이 던진 돌에 맞아 큰 부상을 당하기도 했고, 주먹질과 발길질을 당하고 몽둥이로 매질 당하기도 하였습니다. 존 웨슬리의 동생 찰스 웨슬리도 영국 전역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다가 총을 든 강도를 만나기도 했고, 매를 맞기도 했습니다. 감리교 순회설교자들 중에는 실제로 폭도들에게 폭행을 당해 죽임당한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와 같은 고난들은 웨슬리와 감리교인들의 발걸음을 가로막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좌절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거룩한 삶을 지켰습니다. 박해와 고난 속에서도 사랑을 실천하고 선을 행하는 것이 고난을 이기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확신하였습니다. 물론 폭도들의 공격이 극심할 때에

는 맞서기보다 그 자리를 피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때때로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자신의 생명을 위협하는 사람들에게서 도망치기보다 그들에게 다가가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그 결과 폭도들이 변화되어 예수님을 영접하는 놀라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웨슬리는 당시 감리교인들에게 ‘고난도 은혜의 방편입니다.’라고 가르쳤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겪게 되는 고난은 우리를 거룩하고 온전하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뜻이 담긴 축복의 통로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는 1780년 2월 26일에 앤 볼튼에게 쓴 편지에서, 모든 고난은 위장되었을 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라고 위로하였습니다. 고난에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참여하게 하시려는 선하신 뜻이 담겨 있다고 전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사순절 기간을 보내는 중에 우리가 반드시 묵상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삶에는 필시 세상으로부터 오는 고난이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예수님께 고난을 감당할 은혜를 구합시다.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새 힘으로 말미암아 고난 중에도 하나님을 찬송하고 감사하면서 복음을 더욱 분명하게 증거합시다.



성찰을 위한 질문

1. 최근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당한 고난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봅시다.

2. 찬양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를 함께 부르고, 고난 중에 있는 서로를 위해 중보기도합니다.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괴로울 때 주님의 얼굴 보라 평화의 주님 바라보아 라
 힘이없고 네마음 연약할 때 능력의 주님 바라보아 라

세상에 서 시달린 친구들아 위로의 주님 바라보아 라
 주의 이름 부르는 모든 자는 천주시고 늘 지켜주시 리

눈물들 어 - 주를 보라 - 네 모든 염려 주께 맡겨 라

슬플 때 에 주님의 얼굴 보라 사랑의 주님 안식주시 라

02



2단원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

4월 두 팔로 안아주실 때까지

5월 가정에 뿌리내리는 믿음

6월 예수 나의 치료자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인생활수칙(3)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롬 12:2)

3. 일반생활 수칙

우리는 정의롭고 진실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기 위해 소외된 이웃을 돕고, 그늘진 곳에 사랑의 빛을 비추며, 부패를 막는 소금처럼 사회의 부정하고 변질된 모습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 위해 노력한다.

- ① 동회, 반사회, 부녀회, 노인회 등 지역사회를 위한 일에 관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② 아파트 및 공동주택에 거주할 경우 이웃에게 소음피해가 가지 않도록 조심하고, 이웃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작은 소리로 대화한다.
- ③ 환경공해를 일으키는 물건은 되도록 적게 쓰도록 한다.
- ④ 공적인 일과 사적인 일을 엄격히 구분하여 행동하고, 공공건물이나 물품 및 공동화장실을 깨끗이 사용하는 시민정신을 함양한다.
- ⑤ 차량을 운전할 때 양보운전을 습관화하여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교통법규를 준수하여 남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없도록 한다.
- ⑥ 이웃에게 바르고 정직한 삶을 보여 줌으로 기독교인의 품위를 고양한다.
- ⑦ 직장의 동료들에게 항상 솔선수범하고, 허드레한 일을 내가 도맡아 하며, 책임은 내가 지고, 칭찬은 동료에게 돌리는 리더의 자질을 키운다.
- ⑧ 마을회관, 파출소, 동사무소, 노인회관 등 지역사회의 공익기관에 관심을 갖고, 방문하여 격려하고 봉사함으로 애향심을 기른다.
- ⑨ 시간을 잘 지키고 약속을 엄수함으로 신용을 얻는 그리스도인이 된다.
- ⑩ 어른을 잘 공경하고, 어린이, 부녀자 등 약한자를 우선적으로 배려하고, 장애인을 보호하고 도와준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

두 팔로 안아주실 때까지

4월

하나님께서 당신을 두 팔로 안아주실 때까지,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 1782년 3월 9일, 존 웨슬리가 앤 록스데일에게 쓴 편지 중에서

조용한 기도 다함께

찬 송 405장 주의 친절함 팔에 안기세

성 경 봉 독 마태복음 25:23

요 절 마태복음 25:23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으매 내가 많은 것을 네게 맡기리니 네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하고

말 씀 증 거 말은 이

두 팔로 안아주실 때까지

영어 단어 ‘WIN’(윈)은 많은 사람들이 ‘승리하다’라는 뜻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윈’에는 ‘쟁취하다’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to win a soul’(투 윈 어 소울)이라는 표현은 ‘(사탄의 손아귀에서) 영혼을 쟁취하다. 영혼을 구원하다.’라는 뜻입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웨슬리는 ‘Soul Winner’(소울 위너), 즉 영혼을 쟁취하는 복음전도자였습니다. 그는 일평

생을 복음 전도와 영혼구원에 헌신한, 하나님의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웨슬리는 1777년 6월 25일에 월터 처치에게 쓴 편지에서, 자신의 신앙의 본질은 ‘오직 주님께 충성’이라고 고백하였습니다.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살고, 그분을 위해 죽는 것이 삶의 목적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고백대로 오직 주님을 위해 충성하였으며, 어떤 사역을 하든지 오직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모든 것이 되게 하였습니다. 자신에게는 그 어떤 공로도 돌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신실하고 충성된 종이었습니다.

존 웨슬리의 동생 찰스 웨슬리는 하나님께 자신의 몸과 시간과 재물과 생명을 바칠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의 명예와 평판도 바쳤노라고 고백하였습니다. 하나님을 위하여 영혼구원의 사명을 감당하게 되면, 세상으로부터 멸시와 천대와 조롱을 받게 된다는 것을 직접 경험하였기 때문에 자신의 사회적 신분과 명예도 내려놓게 된 것입니다. 존 웨슬리 역시 주님께 충성함으로서 주어지는 그 어떤 고난이나 비난도 두렵지 않다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주님께 충성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을 받을 준비를 하라고 외쳤습니다.

그리스도인에게 ‘충성’과 ‘헌신’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한 덕목인지 알고 있었기 때문에, 그는 자신을 쳐서 복종시켰을 뿐만 아니라 당시 감리교인들에게, 그리스도께 충성하는 삶에 대하여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웨슬리는 주님께서 두 팔로 안아주실 때까지 하나님께 충성하라고 강력하게 권면하였습니다.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헌신함에 있어서 아무 것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주님의 능력을 믿고 의지하면, 주님의 능력의 팔이 사방팔방에서 우리를 붙들어 주실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내가 주님께 충성하지 않고 나 자신과 나의 소유를 아껴두려고

한다면, 주님께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모든 소유를 거두어 가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받은 능력과 모든 소유를 주님을 위해 아낌없이 바친다면 주님께서 더 많은 것으로 풍성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부를 내어주셨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임 당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어 자신의 생명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이토록 놀라운 사랑을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있겠습니까? 웨슬리는 이 사랑의 깊이와 높이와 너비를 온 몸과 마음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주님께 자신의 모든 것을 내어드림으로써 충성하였습니다.

오해해서는 안 되는 한 가지 사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이고 강압적으로 우리에게 충성을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 충성할지, 나 자신의 만족과 기쁨에 충성할지는 내가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대신 선택해주거나 선택을 강요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희생을 강요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 대신 주님께서 몸소 ‘헌신’을 보여주셨습니다. 만왕의 왕이시요 하나님이시며 구세주이신 예수님께서 친히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생명의 창조주이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가르쳐주셨습니다. 여러분은 누구에게, 누구를 위해 충성하시겠습니까?

부활의 계절에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과 부활의 영광을 묵상하며, 우리 역시 삼위일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충성을 다하는 감리교인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찰을 위한 질문

1. 최근 나의 최고의 관심사는 무엇입니까? 아래의 빈칸에 써 봅시다.



2. 빈칸에 쓴 내용을 보며, 나는 누구에게 '충성, 헌신'하고 있는지 이야기해 봅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

가정에 뿌리내리는 믿음

5월

가정에 뿌리를 내린 신앙만이 진정한 부흥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가정에서 자녀들에게 신앙의 뿌리가 이어지지 않으면, 현재의 신앙은 머지않아 사라지고 말 것입니다.

- 존 웨슬리의 설교 "가정 신앙에 대하여" 중에서

조용한 기도 다함께

찬 송 559장 사철에 봄바람 불어 잇고

성 경 봉 독 에베소서 6:4

요 절 에베소서 6:4

또 아버지야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 씀 증 거 말은 이

가정에 뿌리내리는 믿음

애석하게도 존 웨슬리는 결혼 후의 가정생활에서 행복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장성한 두 딸이 있는 여성과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자녀를 낳아서 양육을 해 본 경험도 없었습니다. 그 대신 웨슬리에게는 자녀교육의 대가(大家)라 할 수 있는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가 있었습니다. 그는 곧잘 어머니께 편지해서 유아·유년교육의 방법에 대해 질문하였고, 어머니는 아들 웨슬리

에게 자신의 자녀육아비결을 가르쳐주었습니다. 1742년, 어머니 수산나가 소천한 당시에 웨슬리는 어머니께서 자신과 자신의 형제, 자매들을 어떻게 양육하였는지 회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일기에 어머니의 자녀양육 방식에 대한 실제적인 방법들과 자신의 경험들을 소상하게 기록하였습니다.

수산나 웨슬리는 19명의 자녀를 낳았습니다. 그 중 9명은 영유아기 시절에 하나님 나라로 먼저 떠나갔습니다. 그녀는 10명의 자녀들을 철저하게 신앙 중심으로 양육하였습니다. 수산나는 자녀양육을 자신의 최대의 사명이라고 여기고 자녀들을 신앙 안에서 올바르게 양육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어머니 수산나에게 자녀양육의 우선순위는 ‘악한 의지 꺾기’였습니다. 자녀들의 악한 습성이나 고집을 만 3세가 되기 전에 뿌리를 뽑고, 기록하고 행복한 성품을 형성해주는 것이 그녀의 자녀양육의 으뜸가는 목표였습니다. 이를 위해 수산나는 하루 단위의 시간표와 일주일 단위의 생활 시간표를 작성하여 자녀들의 생활습관을 형성해주었습니다. 수산나는 자녀들의 일일 생활계획표를 다음과 같이 정하였습니다. 오전 6시 기상 및 세면, 7시 아침기도회, 8시 아침식사, 9~12시 오전 학습, 오후 12시 점심시간, 2~5시 오후 학습, 오후 6시 저녁기도회 및 저녁식사, 7시 목욕, 8시 취침이 자녀들에게 적용했던 하루 생활계획표였습니다. 이와 같은 규칙에 따라 수산나의 자녀들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독립심과 협동심을 배웠고, 예절과 질서, 규칙과 절제를 배웠습니다.

예절 교육에 있어서도, 집 안에서나 집 밖에서 큰소리로 떠들거나 심한 장난을 하지 못하게 가르쳤습니다. 신분에 상관없이 모든 어른들에게 예의 바르게 존칭하게 하였습니다. 물건나 때를 쓰는 경우에는 아무 것도 해주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작은 물건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의 물건에는 손을 대거나 탐내지 않게 하였습니다. 특히 자녀들이 거짓말을 하는 경우에는 단호했습니다. 반드시 벌을 주었습니다. 거짓말을 해서는 아무것도 얻

을 수 없으며, 행복해질 수도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거짓말이 습관이 되면 반드시 불행하게 된다는 것을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반대로, 가정의 규칙들을 잘 지키며 부모님께 순종하고 선을 행하였을 경우에는 그에 합당한 칭찬과 선물을 주었다고 합니다.

어머니 수산나의 양육 방법 가운데, 존 웨슬리와 찰스 웨슬리의 가슴에 깊은 울림을 주었던 것 중에 하나는 어머니와의 일대일 교제 시간이었습니다. 매일 자녀들과 1대1로 시간을 보내며 상담해주고 그 시간에 특별한 사랑을 부어주었습니다. 월요일에는 몰리, 화요일에는 헤티, 수요일에는 낸시, 목요일에는 존, 금요일에는 패티, 토요일에는 찰스, 주일에는 에밀리아와 수키를 만나서 특별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 시간을 통해 모든 자녀들은 어머니의 사랑을 충분히 공급받았고, 위로와 용기를 받았으며 어머니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경험하는 시간을 보냈습니다. 존 웨슬리는 어머니와 함께 보낸 시간들을 평생의 추억으로 간직하고 회상하였습니다.

수산나의 자녀양육은 자녀들의 유년기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 수산나는 자녀들이 출가를 한 후에도 수시로 편지를 써서 자녀들의 형편과 건강, 신앙을 걱정하며 격려와 위로의 마음을 전하였습니다. 이처럼 수산나는 하나님 나라에 가는 그 날까지 자녀들을 믿음 안에서 격려하고 위로해주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는 신앙의 뿌리가 잘 내려져 있습니까?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우리 가정의 신앙의 뿌리를 점검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자녀들이, 하나님을 바르게 믿으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고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잘 하고 있다면 사랑과 격려의 편지를 써주시고, 방황하고 있다면 진심어린 사랑의 조언과 권면의 마음을 전해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가정이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믿음의 가정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성찰을 위한 질문

1. 사랑하는 부모님 또는 배우자에게 감사와 칭찬의 편지를 써봅시다.

2. 사랑하는 자녀에게 사랑과 위로의 편지를 써봅시다.

하나님의 사랑과 우리의 믿음

예수 나의 치료자



나는 칼에 찔린 것처럼 마음에 상처를 받아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내 마음을 치유하실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실 것입니다. 주님의 부드러운 보살핌에 당신을 의탁합니다.

- 1786년 2월 21일, 존 웨슬리가 사무엘 브레드번에게 쓴 편지 중에서

조용한 기도 다함께

찬 송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몸

성 경 봉 독 마태복음 9:35

요 절 마태복음 9:35

예수께서 모든 도시와 마을에 두루 다니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말 씀 증 거 말은 이

예수 나의 치료자

존 웨슬리는 영혼구원을 위해 일평생을 헌신한 주의 종이였습니다. 또한 성도들의 건강까지도 돌보는 따뜻하고 세심한 목회자였습니다. 그는 감리교 부흥운동을 통해 의사와 교사와 목사가 함께 성도들의 가가호호를 찾아가는 심방 목회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특히 웨슬리는 가난한 사람들이 돈이 없어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 못하고 고통을 받다가 생을 달리

하는 것을 안타깝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랜 시간 개인적으로 의학에 관심을 가지고 진지하게 공부하였습니다.

마침내 1745년에, 웨슬리는 63가지 질병에 대한 민간 치료법을 소개한 ‘가난한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처방전 모음’이라는 논문을 1차로 발표하였습니다. 1747년에는 ‘원시 의학’이라는 제목으로 민간 치료법 모음집을 출판하였습니다. 물론 웨슬리는 전문의가 아니었기 때문에 당시 의사들에게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책은 삼십 여회에 걸쳐서 출판될 정도로 가난한 사람들에게 커다란 도움을 주었습니다. 물론 오늘날에는 의학이 놀라울 정도로 잘 발전하였기 때문에 민간 치료법을 사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하겠습니다. 다만, 270여 년 전에는 현대사회와 같이 의학이 발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민간 치료법이나 약초를 사용하는 처방에 많이 의존하였음을 염두에 두고, 웨슬리가 어떠한 심정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며 그들의 영혼과 육신의 건강을 돌보았는지 공감하면 좋겠습니다.

웨슬리는 런던과 브리스톨의 예배당 정원에 약초를 직접 재배하기도 하였습니다. 손수 약을 만들어서 가난하고 병든 사람들의 질병을 치료하고 돌봐주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런던에 진료소를 개설하고, 찾아오는 환자들에게 약을 처방해주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웨슬리는 성도들을 지극히 사랑하였습니다. 아픈 사람들을 위해 기도해주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들을 찾고, 연구하고, 약을 만들어서 직접 찾아가서 나누어주기까지 하였습니다.

한편, 웨슬리는 반려동물도 사랑으로 돌보고 기도해주었습니다. 1746년 3월 17일 일기를 보면, 웨슬리는 자신의 말이 다리가 무척 아파서 제대로 걷지 못하는 상태였고 자신도 머리가 너무 아파서 걸을 수 없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그때 그는 **“하나님! 동물이나 사람이나 주님의 방법으로 고쳐주**

시웁소서!”라고 기도하였는데, 놀랍게도 두통이 깨끗하게 나았고 말의 다리도 완전히 나아서 잘 걷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처럼 웨슬리에게는 사람이든 동물이든 모든 피조물들이 돌봄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는 실로 생명을 소중하게 여기며 함께 아파하는 동반자였습니다.

존 웨슬리는 병이 낫기 위해 의술이나 민간요법만 강조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도만 하면 무조건 낫는다고 가르치거나 권면하지도 않았습니다. 우리의 치료자 되시는 예수님께 병을 고쳐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치료도 받고 약도 먹고 규칙적으로 건강관리를 하면서 건강을 회복하라고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우리를 고치시는 최고의 의사는 예수님이라고 전하였습니다. 그는 자신의 논문 **“이성적이고 신앙적인 사람들에게 보내는 진지한 호소”**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세상에서 제일 좋은 약입니다. 또한 어지러운 세상의 모든 죄악과 불행을 치료하는 영원한 치료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절대로 실패하지 않습니다.’라고 하였습니다. 맞습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오직 예수님이 우리의 최고의 의사이십니다. 몸이 아프십니까? 마음이 상하셨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하며 기도하십시오. 아프신 분들을 위해, 마음이 상하신 분들을 위해 서로 서로 기도해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기도하시면서 치료도 잘 받으시고, 약도 잘 드시고, 식사도 잘 하시고, 규칙적으로 운동도 하시기 바랍니다.



성찰을 위한 질문

1. 서로 서로의 건강상태나 마음의 형편에 대해 이야기해봅시다. 그리고 기도제목도 함께 나누어 봅시다. 서로의 기도제목을 적은 후 6월 한 달 동안 시간을 정해놓고 더욱 간절하게 서로를 위해 기도합시다.

기도제목 나누기

- 이름 : 기도제목 :
- 이름 : 기도제목 :
- 이름 : 기도제목 :
- 이름 : 기도제목 :
- 이름 : 기도제목 :
- 중보기도시간 :



03



3단원
하나님의
학교

7월 영혼에 불을 지르지 마십시오

8월 우주를 돌보시듯

9월 하나님의 학교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인생활수칙(4)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롬 12:2)

4. 창조질서 보전을 위한 수칙

우리는 자연과 생명을 사랑하고 자원을 절약하며, 무분별한 자연 개발을 방지하여, 환경보호에 앞장선다.

- ① 창조질서 보전운동은 자원절약을 생활화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이다. 아껴 쓰고, 덜 쓰고, 바로 쓰고, 다시 쓰고, 나눠 쓰자.
- ② 재활용은 자원절약의 가장 좋은 방법이다. 일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고, 필요한 중고품을 서로 교환하여 이용한다.
- ③ 삼푸, 린스, 세제, 스프레이 등 공해물질을 덜 쓰거나 쓰지 않는다.
- ④ 오염물질이 하천에 배출되지 않도록 폐수는 반드시 정화시설을 통하여 배출하도록 한다.
- ⑤ 비닐을 적게 쓰고 특별히 농산물 포장에 유해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한다.
- ⑥ 재활용이 가능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여 분량을 줄이고, 내가 남긴 쓰레기는 내가 처리하고, 버려진 휴지를 줍는 습관을 기른다.
- ⑦ 청결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담배꽂이나 껌, 침 등을 함부로 뱉지 않는다.
- ⑧ 공원과 공공장소의 시설물을 아껴서 사용하자. 문화생활의 척도는 공공 화장실 사용에 있다. 다음에 이용하는 사람에게 불쾌감을 주지 않도록 깨끗하게 사용한다.
- ⑨ 탐욕을 버리고 일용할 양식으로 자족한다.
- ⑩ 교회 및 NGO 시민단체에서 벌이는 환경보전을 위한 캠페인에 적극 참여하여 활동한다.

하나님의 학교

영혼에 불을 지르지 마십시오

7월

적절하지 못한 모든 혈기를 버리십시오. 성급하고 무분별하게 분노하며 혈기를 부리는 것은 당신의 영혼에 불을 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당신의 몸과 영혼이 편히 쉬게 하십시오.

- 존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의 묵상집 중에서

조용한 기도 다함께

찬 송 413장 내 평생에 가는 길

성 경 봉 독 잠언 12:16

요 절 잠언 12:16

미련한 자는 당장 분노를 나타내거니와 슬기로운 자는 수욕을 참느니라

말 씀 증 거 말은 이

영혼에 불을 지르지 마십시오

4세기 사막 교부 중에 한 사람인 폰투스의 에바그리오스는, 화를 내는 것은 송곳으로 자신의 눈을 찌르는 것과 같다고 말하면서 분노하는 것을 경계하라고 가르쳤습니다. 혈기를 부리고 화를 내는 것은 이성을 마비시켜서 진리를 분별하지 못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자신의 영혼에 상처를 입히는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화를 내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님

니다. 하나님께서 합당하게 여기시는 화는 악한 영들이 성도들을 유혹하거나 공격하여 넘어뜨리려는 일에 대하여 화를 낼 때뿐입니다. 그 외에는 하나님께나 그 누구에게도 정당한 이유 없이 화를 내서는 안 됩니다. 쉽게 분노하는 사람은 미련한 사람이라고 하였습니다.

존 웨슬리 역시 사람이 감정 조절에 실패하고 무분별하게 화를 내면, 그것은 먼저 자신의 영혼에 상처를 입히고 그 다음으로 상대방에게 치명적인 상처를 주게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감정의 절제를 매우 강조하였습니다. 감정 조절은 영성훈련의 기본 중의 기본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인간의 악한 본성에서 나오는 분노를 절제하고, 파괴적인 혈기를 죽임으로써 거룩한 성품을 형성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혈기 부림은 마음의 평안을 깨뜨립니다. 인간관계를 파괴하고 증오와 갈등과 원수 갚음을 조장합니다. 결국 분노는 개인의 생명과 공동체의 생명 모두를 파괴합니다.

웨슬리의 어머니, 수산나는 이와 같은 분노와 혈기 부림의 위험성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인격이 굳어지기 전에, 만 3세가 되기 전에 아이들의 악한 의지나 혈기 부림을 꺾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성급하고 무분별하게 화를 내는 것은 자신의 영혼에 불을 지르는 것과 같으니, 이러한 악한 감정은 버려야 한다고 훈육하였습니다. **수산나는 자녀들을 따뜻한 사랑으로 돌보며 그들이 거룩하고 온유한 성품을 형성하도록 잘 양육하였습니다. 웨슬리는 어머니의 사랑에 힘입어 일찍이 거룩한 성품이 행복한 성품을 낳는다는 것을 깨달았고, 일평생 묵회를 하면서 거룩한 성품을 갖는 것이 행복하게 사는 비결이라고 가르치고 전하였습니다.** 화를 내지 않는 것이 얼마나 중요했는지, 웨슬리는 자신의 설교집 『표준설교』 서문에서, ‘분노의 연기는 영혼의 눈을 흐리게 하여 아무것도 밝히 보지 못

하게 만듭니다.’라고 기록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분노나 혈기 부리는 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1773년 4월 8일에, 우드하우스 부인과 오스틴 페리, 필로시아 브릭스, 이 세 사람에게 쓴 웨슬리의 편지에서 그 비결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 편지에서 웨슬리는 세 사람에게, 악한 성품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께 전적으로 자신을 내어 드려야 한다고 지도하였습니다. 하나님께 전적으로 헌신하는 것은 인간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불가능하며 성령께서 기름 부으셔야 한다고 하였습니다. 웨슬리는 이 일이 결코 쉽게 되는 일이 아니라고 거듭 강조하였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불가능한 일은 없다고 격려하면서 거룩한 성품을 얻기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내어드리라고 가르쳤습니다.

분노나 화는 죄악의 길로 접어드는 지름길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스스로를 가리켜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또한 서로 사랑하라는 새 계명을 주셨습니다. 무덤고 습한 날씨로 인해 저마다 분노 지수, 짜증지수가 급격하게 올라가겠지만 이번 여름에는 각자의 마음을 잘 살피며 어느 때보다도 온유하고 겸손하고 평화로운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성찰을 위한 질문

1. 나를 화나게 만드는 상황이나 사람이 있다면 서로 이야기해봅시다.

2. 7월 한 달 동안은 화가 날 법한 상황을 만나게 되면 ‘예수기도’를 실천해봅시다.

• 예수기도를 하는 방법

하나. 눈을 감고 숨을 들이 마시면서 “주 예수 그리스도시여” 라고 마음속으로 주님을 부릅니다.

둘. 숨을 내쉬면서 “이 죄인을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마음속으로 기도합니다.

셋. 3분에서 5분 정도 이 기도를 반복합니다.

※ 주의!

예수기도는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수도사들과 신앙의 선배들이 기도해 온 기도문입니다. 결코 주문이 아닙니다. 한 문장 한 문장에 마음을 담아 예수님께 기도해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학교

우주를 돌보시듯

8월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심 같이 한 사람을 다스리시고, 한 사람을 다스리심 같이 온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 존 웨슬리의 설교 “영원에 대하여” 중에서

조용한 기도 다함께

찬 송 79장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성 경 봉 독 시편 8:3-4

요 절 시편 8:3-4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말 씀 증 거 말은 이

우주를 돌보시듯

‘겸손’이라는 말은 ‘공경할 겸(謙), 따를 손(遜)’을 씁니다. 즉 공경하여 따른다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국어사전에 ‘겸손’은 “**남을 존중하고 자기를 내세우지 않는 태도가 있음**”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겸손’이라는 뜻의 라틴어는 한자의 뜻이나 국어사전의 뜻과는 사뭇 다릅니다. ‘겸손’이라는 의미의 라틴어는 ‘humilitas’(휴밀리타스)입니다. 이 단어는

‘humus’(휴무스)라는 단어에서 비롯되었습니다. ‘휴무스’는 ‘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므로 ‘휴밀리타스’의 뜻은 ‘땅을 밟고 살아가는 존재, 땅에 밀착하고 있는 상태, 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인간은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땅을 밟고 살아가는 존재요 땅에서 벗어날 수 없는 존재, 말 그대로 ‘한 날 인간에 불과한’ 존재입니다. 즉 인간은 ‘신’이 아니라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피조물입니다. 인간은 피조물이므로 유한한 존재요, 한계가 있는 존재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기 위해 나아가는 자세를 ‘겸손’이라고 합니다.

겸손한 사람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합니다. 존 웨슬리는, 인간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구원하는 은혜’(saving grace)라고 하였습니다. 즉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한계 상황에서 벗어나 구원에 이를 수 있습니다. 반대로 표현하자면, 그 누구도 하나님의 ‘구원하는 은혜’가 없이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간은 연약하고 유한한 피조물이기 때문입니다.

존 웨슬리는 18세기 영국 사회에서 최고의 지성과 신앙을 갖춘 영국 성공회의 성직자요 옥스퍼드 대학교수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구원하는 은혜’를 갈구하였습니다. 육체적으로 병에 걸렸을 때나, 복음전도를 위해 말을 타고 다니다가 낙마하였을 때, 야외설교 중에 폭도들에게 생명의 위협을 받았을 때, 전도여행 중에 폭풍우나 눈보라를 만났을 때 등 날마다 숨 쉬는 순간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였습니다. 웨슬리가 1755년 8월 31일에, 자신의 가정사에 관하여 주로 상담했던 에베네저 블랙웰에게 쓴 편지를 보면, 어

떠한 열악한 상황 속에서도 자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결코 초조해하거나 불안해하지 않는다고 고백하였습니다. 웨슬리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항상 평안하고 만족함을 느끼며 불평하지 않는다고 편지하였습니다.

또한 그는 13세기 이탈리아의 대표적인 신학자였던 토마스 아퀴나스의 말을 인용하여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노래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온 우주를 다스리심 같이 한 사람을 다스리시고, 한 사람을 다스리심 같이 온 우주를 다스리십니다.’ 웨슬리의 고백대로, 실로 여호와 창조주 하나님은 온 우주를 돌보시는 그 사랑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돌보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얼마나 놀랍습니까!

시편 8편을 노래한 다윗은 주님께서 창조하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푸어 두신 달과 별들을 보면서 인생을 세심하게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노래하였습니다. 우리의 도움은 세상이 아닌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도 다윗처럼 하늘을 보고, 들판을 보고, 나무를 보고, 하늘을 나는 새들을 바라보며 우주를 돌보시듯이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더욱 힘써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를 날마다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성찰을 위한 질문

1. 이번 주에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신 일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2. 시편 8편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기도를 적어봅시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 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심이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 나의 기도:

하나님의 학교

하나님의 학교

9월

'인생'은 '하나님의 학교'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그분의 학교에서 잘 가르쳐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학교에서, 하나님은 당신을 무한한 지혜로 가르쳐주실 것입니다. 그곳에서 당신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배우고 하나님 안에서 당신의 모든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 1776년 1월 27일, 존 웨슬리가 알렉산더 녹스에게 쓴 편지 중에서

조용한 기도 다함께

찬 송 524장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성 경 봉 독 시편 25:4

요 절 시편 25:4

여호와여 주의 도를 내게 보이시고 주의 길을 내게 가르치소서

말 씀 증 거 말은 이

하나님의 학교

웨슬리는 영국의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인 존 녹스의 후손인 알렉산더 녹스가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듣고 위로의 편지를 보냈습니다. 비록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 고통 중에 있지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투병생활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할 수 있다고 위로해주었습니다. 혈기 왕성함으로 세상 쾌락을 쫓는 대신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시간을 보낼 수 있음이 하나님

의 은혜요, 세상과 죄에 대하여 죽고 믿음으로 살고 있으니 이 또한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말해주었습니다. 곁에서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간호를 해주시는 부모님이 계시고, 생활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부족하지 않게 있으니 모든 것이 행복의 조건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편지의 말미에서 웨슬리는 녹스에게, 지금의 투병생활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하나님의 학교’라고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게 될 것이고 무엇보다 하나님 안에서 참된 행복을 발견하게 될 것이라고 가르쳤습니다.

1784년 4월 1일에 앤 볼튼에게 쓴 편지에서도 그는, 인생의 고난을 겪고 있는 앤에게 “**지금 당신은 하나님의 학교에 있습니다. 당신이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다 배우게 될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 한 가지씩 당신에게 가르쳐주실 것입니다.**”라고 전하였습니다.

이처럼 존 웨슬리는 인생을 하나님의 학교라고 여겼습니다. 이는 웨슬리 개인만의 생각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수산나 웨슬리는 17세기 영국의 신학자였던 리처드 루카스의 묵상록을 읽고서 ‘세상’이 하나님의 학교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자녀들에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훌륭한 학교라고 가르쳤습니다. 세상의 시련과 고난은 그리스도인들을 가르치고 훈련함에 가장 좋은 수업이요 스승이라고 하였습니다. 이는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변하지 않는 교훈입니다. 인생을 살면서 겪게 되는 희로애락을 통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온유함과 겸손함을 배우게 됩니다.

웨슬리는 하나님의 학교에서 배우는 것을 무척 좋아하였습니다. 그는 배우의 기쁨과 축복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심은 인간과 사랑의 교제를 나누시기 위함이요, 하

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가르쳐주시기를 기뻐하신다는 것을 그는 일찌감치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웨슬리는 “**나는 모르는 것이 많으니 나에게 가르쳐주시기 바랍니다.**”라고 자주 고백하였고, 나이가 들어 노쇠해지더라도 자신이 사는 동네의 집들과 사람들의 이름을 배우겠다고 말하였습니다.

‘확증편향’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어떠한 사건이나 정보에 대한 다른 사람의 말은 듣지 않고, 오직 자신의 지식, 경험, 생각을 위주로 자신의 주장만을 고집하는 성향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확증편향을 내세우는 것만큼 위험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유일한 스승이 되시고 진리의 근원이 되시는데, 이것을 인정하지 않고 아무 것도 들으려 하지 않고 아무 것도 배우려고 하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필요하지 않다는 것을 스스로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유일하신 스승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인생의 학교, 세상의 학교에서 우리를 사랑으로 가르치시고 양육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마음을 부드럽게 하여 인생의 학교에서 하나님의 거룩함과 참된 행복을 배우는 가을을 보내시길 기도합니다.



성찰을 위한 질문

1. 사랑하는 가족에게 딱 한 가지만 가르쳐줄 수 있다면 무엇을 가르쳐주시겠습니까?

2. 하나님께서 나에게 가르쳐주신 가장 소중한 가르침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04



4단원 사랑의 실천

10월 예수 내 친구

11월 걱정 대신 감사

12월 손발 없는 예수는 없다

기독교대한감리회 교인생활수칙(5)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롬 12:2)

5. 정직운동 실천을 위한 수칙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항상 정직하게 행하여 사회에서 존경받고 칭찬 받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에 앞장선다.

- ① 날마다 정직한 마음을 갖도록 기도한다.
- ② 정직선언서를 만들어 서명하여 마음에 새기고, 가장 많이 사용하는 장소에 부착하여 날마다 보도록 하게 한다.
- ③ “예”와 “아니오”를 분명히 한다.
- ④ 약속을 꼭 지킨다.
- ⑤ 정직이 최선의 삶의 모범임을 자녀들에게 가르친다.
- ⑥ 공공질서를 잘 지킨다.
- ⑦ 부정한 뇌물을 주지도 않고 받지도 않는다.
- ⑧ 검약생활에 본보기가 된다.
- ⑨ 국가에 세금을 정직하게 내고, 교회 통계표를 정직하게 보고한다.
- ⑩ 지방이나 연회의 각 선교회 단체에서 주관하는 크고 작은 행사 때 마다 정직 캠페인을 벌려 감리교인 전체가 정직한 사람이 되게 한다.

우리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존엄성을 회복할 수 있도록 힘쓰고, 화해와 평화가 넘치는 인류사회를 위해 봉사한다.

사랑의 실천

예수 내 친구

10월

사랑 안에서 동역자들과 자주 교제하고 대화하십시오. 서로를 위하여 온 마음을 다해 함께 기도함으로써 서로의 믿음을 굳세게 하십시오. 그렇게 하면 우리는 끝까지 견디고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 존 웨슬리의 에세이 “감리교인이라 불리는 사람들에게 대한 쉬운 해설” 중에서

조용한 기도	다함께
찬 송	92장 위에 계신 나의 친구
성 경 봉 독	히브리서 10:24-25
요 절	히브리서 10:24-25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폐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말 씀 증 거	말은 이

예수 내 친구

아프리카 속담 중에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입니다. 가까운 거리를 빨리 가려면 혼자 가는 것이 효율적입니다. 하지만 먼 거리를 완주하려면 함께 가야 합니다. 42.195km를 달리는 마라톤 경주에서 한 명의 선수를 위해 옆에서 속도를 조절하여 좋은 기록을 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선수를 ‘페이스 메이커’(pace maker)

라고 합니다. 페이스 메이커는 자신이 돕는 선수를 위해 옆에서 보조를 맞추어 달려주며, 목이 마를 때는 물을 건네주고, 속도가 느려질 때에는 힘을 내라고 외치며 응원해줍니다. 멀고도 험난한 천로역정의 인생 마라톤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우리의 페이스 메이커가 되어주십니다. 때로는 뒤에서 밀어주시고, 때로는 앞에서 끌어주시며 우리가 결길로 새거나 주저앉아 낙심하고 포기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와 동행하여 주십니다.

하지만 감리교 영성은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셨듯이 나 역시 내 옆에 있는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좋은 친구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존 웨슬리는 감리교인들에게 세상을 홀로 걸어가는 것은 매우 위험하기 때문에 믿음의 동역자들과 자주 교제를 나누고 대화하라고 하였습니다. 서로 기도해주며 돌보아주는 영적 교제가 신앙의 커다란 유익이라고 가르쳤습니다.

18세기 영국성공회의 신자가 점점 줄어들게 된 까닭에 대해 웨슬리는 성도의 교제를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감리교 공동체 안에 속회를 만들어서 성도들이 서로의 신앙을 돌보는 것뿐만 아니라 서로의 삶을 돌보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사랑과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게 하였습니다. 이는 감리교인들의 ‘마음 뜨거운 교제’를 이루었고, 개인의 영적인 변화가 공동체의 변화로 이어졌고, 공동체의 변화가 마을과 사회, 그리고 국가의 변화로 이어졌습니다.

웨슬리는 영국 사회에 ‘감리교인’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소개하는 글을 기록하였습니다. 그 글에서 감리교인들은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사람들이요 은혜 안에서 영적으로 성장하도록 돕는 사람들이라고 소개합니다.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을 위해 기도하고, 직접 찾아가서 위로해주는 사람들이라고 하였습니다. 영국성공회의 교구 안에서는 이러

한 사랑의 교제와 돌봄을 찾아볼 수 없어서 감리교 공동체 안에 성도의 모임을 조직했다고 적었습니다. 특히 ‘반회’(band-meeting)에서 감리교인들은 서로를 위해 날마다 중보기도하고, 각자의 허물을 고백하며 서로에게 예수님 안에서 용서와 치유와 위로를 베푼다고 하였습니다.

이뿐 아니라,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그리스도인들이 교회 안에서 자기들끼리만 교제하는 것은 기독교를 부흥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기독교가 사라지게 하는 행위라고 웨슬리는 주의를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과 자비로 세상 사람들과도 적극적으로 교제를 나누되 도덕적으로 타락한 사람들이나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사람들과도 사랑의 교제를 나누어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그의 설교 『산상수훈 4』에서, 그리스도인은 본질상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의 맛을 나타내야 한다고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과 섞여 살면서 그들과는 다른 향기를 발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에 거하게 하시는 목적입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서 우리가 받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셔서 우리를 변화시켜주셨으니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의 친구가 되어주어야 하겠습니다.



성찰을 위한 질문

1. 가장 기억에 남는 친구와 그 이유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봅시다.

2. 내가 도와주고 싶고 친구가 되어주고 싶은 사람이 있는지 생각해보고 그 영혼을 위해 기도합시다.

사랑의 실천

걱정 대신 감사

11월

오늘은 더욱 특별히 나의 영혼에 유익한 날이었다. 오늘은 여러 차례 불안과 근심이 나를 찾아왔다. 그래서 주님의 이름을 계속해서 불렀다. 그러자 주님께서 나에게 주님의 분명한 길을 보여주셨고, 모든 불안과 근심에서 벗어나게 해주셨다. 나는 평안함 가운데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하였다.

- 존 웨슬리의 1752년 10월 29일 일기 중에서

조용한 기도 다함께

찬 송 588장 공중 나는 새를 보라

성 경 봉 독 골로새서 3:17

요 절 골로새서 3:17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말 씀 증 거 말은 이

걱정 대신 감사

존 웨슬리는 영국 전역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며 순회설교를 하였습니다. 전도여행 중에 그는 술하게 박해와 핍박과 고난을 당했습니다. 어느 날 웨슬리는 말을 타고 가다가 갑자기 최근 3일 동안 아무런 박해나 공격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얼른 말에서 내려서 하나님께 꿇어 엎드려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제가 지난 3일 동안 주님 앞에 죄

를 범하고 타락해서, 폭도들로부터 아무런 공격을 받지 않는 것입니까?” 웨슬리는 자신이 잘못된 것이 있으면 깨닫게 해달라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부르짖어 기도했습니다.

그때 저 멀리서 어떤 남자가 기도 소리를 듣고 다가가서 보니, 기도하는 사람이 존 웨슬리인 것을 알아했습니다. 그는 평소 웨슬리에게 앙심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웨슬리를 혼내줄 심상으로 돌덩이 하나를 웨슬리에게 집어 던졌습니다. 돌덩이는 웨슬리를 빗나갔습니다. 기도를 멈추고 주위를 살핀 웨슬리는 어떤 상황인지 파악하고는 다시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여전히 박해가 있음에 감사합니다. 제가 여전히 주님의 임재 안에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이 일화를 통해 우리는 웨슬리가 얼마나 대단한 감사의 사람인지 엿볼 수 있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데 누군가가 나에게 돌을 던지거나 피해를 입힌다면, 십중팔구는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께 따질 것입니다. **“아니! 주님, 내가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있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런데 웨슬리는 박해와 핍박 속에서 자신이 올바른 길로 가고 있음을 확신하며 주님께 감사드렸습니다. 그는 자신이 쓴 『신약성서주해』의 내용 중에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범사에 감사하라’라는 구절에 관해 이렇게 주해하였습니다. ‘감사는 기도의 본질적인 요소입니다. 진정한 기도에는 항상 감사가 포함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기도를 하든지 감사와 찬양을 드려야 합니다. 평안할 때든지 괴로울 때든지 역경 중에 있든지 어떠한 상황 가운데 있든지 이미 지금 소유하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으로 인하여 반드시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감리교인이 실천해야 하는 ‘범사에 감사하는 삶’입니다.

웨슬리는 감사가 몸에 배어 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의 일기를 보면 주

님께 감사드린다는 표현이 셀 수 없을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는 일주일을 돌아보는 ‘자기성찰목록’에서 ‘나는 지난 한 주 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어 주신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는가?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 세밀하게 느끼고, 깊이 묵상하고, 충분히 감사하는 시간을 가졌는가?’라는 질문을 통해 하나님께 감사하는 훈련을 철저하게 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삶을 적극적으로 가르쳤습니다. 1777년 4월 26일에, ‘Miss. March’에게 쓴 편지에서 웨슬리는 **“당신은 만 가지 자비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로 말미암아 당신은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드려야 합니다.”**라고 권면하였습니다. 1778년 7월 11일에 ‘알렉산더 녹스’에게 쓴 편지에서는 **“당신이 이미 가진 모든 것으로 인하여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그 다음에 당신이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을 주님께 구하십시오.”**라고 가르치면서 감사기도가 간구기도보다 선행되어야 함을 일러주었습니다.

기도가 성도의 호흡인 것처럼 감사 또한 성도의 호흡입니다. 주님께 감사하는 삶은 수 천 수 만 번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오늘부터 새로운 마음으로 매일 매일 감사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감사를 통해 은혜가 회복되고 믿음이 회복되기를 소망합니다.



성찰을 위한 질문

1. 지난 10개월을 돌아보며 감사했던 내용들을 적어봅시다.

2. ‘우리 집 감사일기장’을 만들어봅시다. 수첩을 하나 마련한 후 모든 가족들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놓은 뒤, 가족 모두가 하루에 한 가지 이상씩 감사했던 일을 적어봅시다.

사랑의 실천

손발 없는 예수는 없다

12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영혼에 비취주신 이 빛을 숨기지 말고 여러분이 만나고 대화를 나누는 모든 사람에게 비추십시오. 행동으로 빛을 비추십시오. 특별히 선행으로 빛을 비추십시오. 그리고 의를 위하여 받는 고난으로 빛을 비추십시오. 그리고 하늘에서 받을 상이 크다는 것을 기억하며 기뻐하고 즐거워하십시오.

- 존 웨슬리의 설교 “산상수훈 4” 중에서

조용한 기도 다함께

찬 송 505장 온 세상 위하여

성 경 봉 독 야고보서 2:26

요 절 야고보서 2:26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것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니라

말 씀 증 거 말은 이

손발 없는 예수는 없다

기독교의 능력은 지식이나 이론에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영성의 능력은 실천에 있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영성이 먼저 발생한 후에 이를 설명하고 변호하기 위해 지식과 이론이 정리된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이론과 지식만 있고 정작 사랑의 실천이 없으면 기독교는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야고보도 어떤 형제나 자매가 입을 옷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데, 누가

가서 그들에게 “**평안히 가서 옷을 입고 배부르게 먹으십시오.**”라고 말만 하면서 아무 것도 주지 않는다면, 이는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라고 호소하였습니다. 믿음과 사랑에 행함이 따르지 않으면 그 자체만으로 죽은 믿음, 죽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존 웨슬리는 일평생동안 경험적이고 실천적인 신앙과 영성을 추구하고 가르쳤습니다. 존 웨슬리를 통해 영국 전역에 일어난 감리고 부흥운동은 실천적인 사랑의 혁명이었습니다. 그가 말하기를, 진정한 기독교는 머리와 가슴과 손과 발을 모두 가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손과 발이 없는 예수는 없다고 가르쳤습니다. 즉 실천하지 않는 기독교 신앙은 기독교 신앙이 아닙니다.

웨슬리는 자신의 설교 『산상수훈 4』에서, 우리의 겸비와 온유와 평화와 하나님 안에서의 참된 행복과 인류에 대한 사랑을 세상 사람들에게 적극적으로 나타내 보이라고 강권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랑의 빛을 행동으로 삶으로 비추어야 한다고 열변하였습니다.

웨슬리에게 믿음이란 하나님의 선물이요 인간의 행동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사람들과 하는 탁상공론이나 교리적 논쟁보다 확실하고 실천적인 신앙을 선호하였습니다. 기회가 주어지는 대로 모든 사람들에게 선을 행하는 사람이 평화를 위하여 일하는 사람들이요,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그는 설교하였습니다. 더 나아가 사랑의 실천의 대상은 가족이나 친구의 범위를 넘어서 모르는 사람을 비롯하여 나와 내 가족에게 해를 끼친 원수에게까지 뻗어 나아가야 한다고 가르쳤습니다. 물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웨슬리는 자신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공격하는 사람들까지도 끝까지 사랑으로 섬겼습니다. 그 사랑에 감동한 수많은 폭도들이

손에 들고 있던 돌덩이와 몽둥이를 내던지고 웨슬리가 복음을 외치는 야외 설교의 현장에 찾아와 말씀을 듣고 찬양을 부르며 하나님 나라의 순한 양들이 되었습니다.

웨슬리는 “**하나님의 포도원**”이라는 설교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으로 의롭다 함을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평화를 누리는 사람이요 내적으로 변화되어 하나님의 사랑이 가슴속에 흐르는 사람이라고 선포하였습니다. 무엇보다 **그리스도인은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해주기를 바라는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실천하는 사람이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생활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행하는 사람**이라고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이 믿음과 사랑을 삶으로 실천하는 참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산을 옮길만한 믿음이 있다고 해도 그 믿음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아니라면, 그리스도인의 삶에 온유와 겸손과 자기부인이 없다면, 친구나 원수나 비그리스도인을 향한 따뜻한 사랑이 없다면 그것은 그리스도인의 믿음이 아닙니다. 더욱이 예수님께서서는 마태복음 25장에서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고, 입을 옷이 없을 때에 옷을 입히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고, 옥에 갇혔을 때에 찾아가서 돌본 것이 곧 예수님을 섬긴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 우리는 사랑의 실천의 기준을 깨닫게 됩니다. 따뜻한 물 한 잔 건네는 것, 고통 중에 있는 영혼을 찾아가서 손잡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랑의 실천의 기준입니다. 이번 겨울은 사랑이 필요한 영혼들의 손을 잡아드림으로써 내 안에 계신 예수님의 온기를 나누는 사랑의 계절이 되길 소망합니다.

성찰을 위한 질문

1. 최근에 내가 사랑을 실천한 경험이 있다면 함께 나누어 봅시다.

2. 아래의 물음에 따라 사랑의 실천 계획표를 만들어봅시다.

- 언제 :
- 어디에서 :
- 누구에게 :
- 무엇을, 어떻게 :

참고도서

김진두. 「존 웨슬리의 생애」 서울: kmc, 2006.

_____. 「웨슬리 실천신학」 개정판. 서울: kmc, 2006.

_____. 「웨슬리와 우리의 교리」 개정판. 서울: kmc, 2009.

_____. 「웨슬리의 행복론」 서울: kmc, 2020.

Wesley, John. The Bicentennial Edition of The Works of John Wesley. Franz Hilderbrandt ed. Nashville: Abingdon press. 1983.

* 2024년도 월례회 공과 감수위원이신 김진두 박사의 「웨슬리의 행복론」과 「존 웨슬리의 전집」 중 일기, 설교, 편지, 논문, 에세이를 주로 참고하였습니다.

대한민국건국훈장 애족장 추서 받은 최인규 권사

민족신앙 강제 신사참배 거부
순교 · 순국선열

2022. 9. 15. 정부에 감독회장 및 감독회의 그리고 입법의회, 본부 임직원, 역사보존위원회, 탁사 최병헌목사기념사업회 등에 의해 서명, 청원된 문건을 토대로 대한민국정부에서는 2023. 11. 16. 순국선열일을 기해 대한민국 건국훈장 애족장을 추서받았으며, 훈장은 딸의 유족에게 전수되었다.
안타까운 건 소천하는 과정이 너무도 처참하여 유족들은 신앙을 잃고 살아왔으니 이제부터라도 그들을 위해 우리 감리교인들이 따뜻한 격려의 기도를 하 시기를 요청드리는 바다.

* 강제 신사참배 등 일체의 친일 거부한 유일한 대한인 평신도

* 생몰일 : 1881. 11. 15. ~ 1942. 12. 16. 62세로 서거

생애조명

강원도 삼척군 북평읍에서 최돈일의 2남1녀 중 차남으로 이 땅에 출생했다. 한학을 수업하고 부모의 주선으로 홍은선과 혼인하여 첫 딸을 낳았으나 후엔 자녀를 낳지 못했고, 부인이 사망하자 술로 세월을 보냈다. 1921

년 동해 북평제일교회 목사 김기정의 인도와 상동교회가 발행한 <가뎡잡지> 중 전덕기 목사의 “술의 해됨”글에 감동을 받아 교회를 출석하기 시작했다. 1925년 세례를 받고 입교인이 되었으며, 주일을 엄숙히 성수하고 매일 아침 홀로 가정예배를 드렸으며 전도하기를 기뻐했고, 속장, 주일학교 교장직을 맡던 중 1932년 권사직을 받았다. 그는 모든 재산인 논 539평, 밭 1,369평을 교회대지로 헌납하고 스스로 새끼를 꼬고 목재를 날라 예배당을 새로 지어 봉헌하는 등 민족신앙정신 강화에 기여했다.

1936년 미나미 총독이 부임하여 조선민족말살정책으로 신사참배 강요를 시작해 1938년엔 교회 지도자들을 총칼로 압박해 각 교단 총회에서 의결케 했다. 이로써, 하나님의 자녀들은 갇은 수모를 겪으며 일제의 정신고문에 시달렸다. 광복 후 전국 2,200여 개의 신사는 1945년 8월 15일로부터 3일 만에 대한인, 특히 기독교인들에 의해 모조리 파괴되어 흔적도 안 남아 있다. 강제 신사참배 강요의 증거이다.

가중되는 압박에 변질되어 가는 교회를 보며 근심하던 최인규는 1940년 5월 강제 신사참배 거부로 피체되어 삼척 왜경들에게 취조를 받았다. “나는 당신의 말에 따를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다른 신을 섬기는 것은 우상숭배다. 신사는 일본의 종교이다. 신사참배는 다른 신 앞에 굴복하는 것이다.” 이에 왜경들은 망신을 주기위함인지 그에게 [똥통을 지게에 지우고 동네마다 다니며 “내가 예수 믿는 최인규입니다.”를 외치게 했고 이를 최인규는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으로 여겨 감사”했다. 재판장은 1941년 11월 최인규를 불경죄로 징역 2년형에 처했다.

그는 징역에서도 그들의 요구에 일체 응하지 않았으며 늘 찬송을 불렀다. 당연히 매와 고문을 달고 살았다. 같은 징역방 원산지방 고성교회 이진구 목사(사상불온 및 불경죄)는 최인규의 나이를 보니 간수들에게 매맞고 고문 받는 것이 안쓰러워 “신사참배를 한다하면 내보내줄 것 같으니 그냥 한다고 하세요.”라 권면했다가 오히려 책망을 당했다. 최인규는 최후의 결단을 내리고 단식으로 맞섰다. 계속되는 고문과 단식으로 강건하던 몸이 쇠약해져 1942년 12월 16일 옥중 순교·순국하여 온 곳으로 다시 돌아가 빛이 되었다. 그의 시신은 유족에게 인도조차 없이 화장되어 유해는 공동묘지에 있다가 현재는 강원도 동해시 천곡교회에 안장되었다. 신사참배, 창씨개명, 황국신민서사 낭송, 왜장기 경례, 동방요배, 동네부역 등 일체의 황국신민화 정책을 거부하였으며, 무면회, 무번호, 무사식에 시신조차 인도가 없었던 유일한 사례이다.

‘유일한 대한인(평신도)’의 뜻은 당시 2,000여 만 인구 중 유일하다는 말이다. 유교 1,500만, 불교 300만, 천도교 100만 등은 우상숭배가 아니므로 신사참배를 거부할 이유가 없었고, 천주교 20만은 바티칸의 명에 따라 참배에 응했으며, 결국 남은 인원은 장로교 25만과 감리교회 5만이 궁극적 거부의 상대였으나 각 교단 총회는 왜의 총칼에 의한 강제에 굴복한 상태였으므로 99% 순응하였고, 일부 100여 명의 목회자와 평신도만 거부로 투옥되었다. 이 중 순교·순국자 5명 중 4명이 목회자이고 평신도는 1명이므로 끝까지 하나님 신앙을 지킨 평신도 순교·순국자는 최인규가 유일한 것이다.

최인규 권사의 민족공헌 정리

1. 논밭을 교회에 기부하여 민족자원화했다. - 민족정신 강화
2. 1942년 12월 16일 항왜 순교하므로 순국선열이 되었다.
3. 유일한 대한인(평신도) 강제 신사참배 거부 순교·순국자이다. 교우들과 동포들에게 거룩한 사표가 되었다.
4. 신사참배, 창씨개명, 궁성요배, 황국신민서사 낭송, 왜장기 경례, 동네부역 등 아무 것에도 응하지 않았다. 이는 다른 분들은 여타의 황국신민화 정책엔 응했던 뜻이다.
5. 고 최인규의 생애에 대해선 감리교회에서 1) 한국감리교회 인물사전 2) 한국 감리교회 독립유공자 및 미추서자 전 3) 순교자 기념주일 자료집 4) 순교 순국자 최인규 권사의 사람과 신앙 등에 실려있다.
6. 1941년 11월 21일자 최인규 권사의 범죄인 명부가 실존해한다.
7. 이진구 목사의 증언 : 1942년 함흥재판소에서 함께 재판을 받을 때에 이진구 목사와 한 방에 있었다. 최인규 권사는 이미 강원도 고성읍교회를 담임하면서 강릉지방의 부흥사경회를 인도하였던 이목사를 알아보고 함께 대화를 나누었다. 이목사는 최권사가 나이가 60세에 이른 것을 알고 자기보다 20세나 많은데 어찌 그 연세로 고문을 견딜 수 있겠느냐 하며 신사참배 한 번만 하시고 나가시라고 했는데 최권사는 “목사님이시면 신앙양심으로 말씀하세요.”라고 정중하게 말씀을 드렸다고 한다.

(글 민관기 목사)



근대초기 여선교사 엘라수 와그너

(Ellasue C. Wagner, 1881-1957)

여선교사 엘라수 와그너는 한국인들에게 아펜젤러나 언더우드처럼, 혹은 이화학당을 설립한 스크랜턴 여사처럼 그렇게 잘 알려져 있지는 않다. 그럼에도 감리교인이라면 엘라수 와그너의 한국여성들을 위한 선교사역과 교육적 열정은 충분히 주목해야 할 가치가 있다고 믿는다.

엘라수 와그너, 그는 누구인가? 그는 1881년 미국 버지니아주의 헌터스빌 (Huntersville)에서 목사의 딸로 출생하였다. 마리온 칼리지, 마르타 워싱턴 칼리지에서 공부하였고, 1936년에는 스카릿 칼리지에서 석사학위를 받았다.

와그너의 선교사역은 그의 사역초기부터 평범치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1904년 그가 만 23살 때 미국 남감리교 홀스톤 연회 파송선교사로 떠나게 되었을 때 마침 러시아와 일본과의 전쟁이 있었고 조선은 그에 따른 불안과 위협이 예고된 환경에 처해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와그너는 먼저 중국 상하이로 배를 타고 갔다가 거기에서 제물포로 오게 되었는데 그의 회고록 (Korea Calls: Pioneer Days in the Land of Morning Calm, 1948)에 의하면

그 배안에는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고 또한 와그너 혼자 여성이었다. 마침내 배가 제물포에 성공적으로 도착하였으나 아직 부두가 설치되지 않은 항구였기에 배가 육지 가까이 갈 수 없었다. 결국 와그너는 조선인부들이 받쳐서 길을 만들어 가까스로 육지에 닿을 수 있었다. 당시 젊은 여성으로서 서양인들에게 잘 알려져 있지 않았던 미지의 땅 조선에 선교사로 파송을 받아 처음 발을 딛었을 때의 상황이 와그너에게 얼마나 힘들고 긴장의 상황이었을까를 상상하는 것은 결코 어렵지 않다.

남감리교 선교사로서 와그너의 주요 사역은 조선의 소녀들과 여성들을 교육과 선교를 통해 일깨움으로 복음화와 근대화로의 발돋움에 기여하는 것이었다. 1904년 개성선교부로 부임하면서 그의 첫 사역은 당시 12명 남짓했던 조선소녀들을 교육하는 것이었다. 작은 인삼막사에서 시작하여 그 개성여학교는 와그너의 탁월한 행정과 교육능력을 통해 성장하기 시작하여 1906년에는 49명의 소녀들이 입학을 신청했다. 기숙사를 갖춘 여학교를 꿈꿨던 와그너는 그렇게 많은 학생들을 수용할 시설이 없어 새 학교 건물이 필요함을 절실히 느끼게 되었는데, 마침 스탠리박사 (Dr. Thomas F. Stanley)와 홀스톤 연회 (Holston Conference)의 여성들의 기부와 후원을 통해 3층 학교 건물을 세우게 되었고 그 학교는 호수돈 학교(Holston Institute)로 알려지게 되었다. 호수돈 학교는 이후 계속 성장하여 1925년 경에는 전교생 총 1,087명으로 고등부에 170명, 초등부에 620명, 유치부에 297명이 공부한 것으로 명기되어있다.

와그너는 여성들을 위한 사회복지와 선교사역에서도 두드러진 성과를 나타낸 것으로 알려져 있다. 개성(송도)에 위치한 고려여자관(1924-

1925, 1937-1938)과 서울의 태화복지관(1926-1934)에서 사역하면서 다양한 교육 선교사업을 실시하였다. 와그너가 관장으로 있던 1925년 고려여자관은 바느질, 요리강습, 유치원, 어린이들을 돌보고 훈련하기 위한 프로그램, 음악, 성경, 영어, 야학 등을 통해 여성의 교육과 지위향상에 힘썼는데, 혜택을 입은 여성들 중에는 믿지 않는 가정출신 여성들도 상당수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성공적인 사역의 열매를 맺을 수 있었던 뒤에는 물론 남들에게 쉽게 말하기 어려운 힘든 때도 있었다. 특별히 선교초기에 겪었던 언어문제는 그에게 아픈 기억이었던 것 같다. 그의 한국어 선생은 영어단어를 전혀 몰랐기에 와그너가 이것이 무엇인가 저것이 무엇인가와 같은 질문을 하면 그는 그 이름을 한국어로 발음해주고 그러면 와그너는 그것을 100번 이상 되풀이하면서 한국어를 배웠는데, 후에 와그너는 그러한 환경 속에서 어떻게 자신이 한국어 말하기를 배우는 것이 가능했었는가 고백한다.

또 다른 기억은 와그너가 개성(송도)에서 첫 겨울을 보낼 때였다. 한번은 그가 심각한 기관지 감염증세를 앓았고 결국 의료서비스를 받기 위해 급히 서울로 올라가야 하는 상황에 이르렀다. 2-3일 걸리는 여행이었고 다른 선교사들은 모두 바빠서 함께 갈 수 없었던 상황이라 그는 한국인 김태일에게 와그너의 마차 운반자들을 관리하는 책임을 맡겼다. 때는 장마철이라 거리에 물이 허리까지 차오르는 상황에도 그 물을 헤치고 밤길을 가야하는 어려운 상황에 있었고 또한 무엇보다도 아직 한국어가 서투른 가운데 서로 언어가 통하지 않아서 매우 힘들었던 것으로 와그너는 회고하고 있다.

때로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것들을 헤치고 근대초기 조선에서의 교육 선교를 위한 헌신과 열정으로 굳건하게 나아갔던 와그너의 사역은 1940년 일제에 의해 강제로 퇴출될 때까지 계속되었다. 특별히 그러한 교육선교 활동 경험들을 바탕으로 한 와그너의 저술들은 그의 사역을 좀 더 깊이 조명하기 위한 가치있는 자료들이 될 수 있다고 할 수 있다. 그 예로는 『미국인 교육가 엘라수 와그너가 본 한국의 어제와 오늘: 1904-1930』(김선애 역, 2009), 그리고 와그너의 문학작품들로서 『김서방이야기 외』(Kim Su Bang and Other Stories of Korea, 1909), 『복점이』(Pokjumie, 1911), 『금옥이』(Kumokie, 1922) 등이 있다.

(글 차은희 목사)





존 웨슬리 3가지 삶의 규칙

1. 남을 해하지 말라
2. 선을 행하라
3. 하나님과 사랑 안에 거하라



기독교대한감리회 사회평신도국

03186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149 감리회관 16층
☎ 02-399-4346~9 Fax. 399-4350